

“IMF 때도 돈 잃어...이자 손해 보더라도 예금 찾으러요”

르포-새마을금고 위기설 '내 돈도 혹시?'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 소식에 예·적금 중도해지 고객 등 복직 영업점 “일부 부실 금고 얘기...모든 금고 안전” 고객 잡기 ‘진땀’

6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에는 대출창구를 제외한 모든 예·적금 창구 앞은 고객들로 붐볐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고객만 해도 6명으로, 평소 한산하던 영업점 내부가 오랜만에 북적였다.

창구에 앉은 한 여성 고객은 영업점 직원에게 “6000만원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하며 전표를 쓰기 시작했다.

영업점 내부에서 만난 한 중년여성은 “오는 19일이 정기예금 만기일인데 불안해서 왔다”며 “7000만원을 맡겼는데, 이자 손해를 보더라도 2000만원은 미리 찾아야 할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예금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내일 다시 와야겠다”며 서둘러 영업점을 나섰다.

영업점 내부는 이 여성처럼 자신이 맡겨둔 예금을 찾으러 온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대기 중인 고객들은 휴대전화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면서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대기 중인 한 방문객은 “피 같은 돈인데 걱정이 안될 수 있냐”며 “정부에서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IMF 때도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에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혹여 맡겨둔 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장 영업점을 방문해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예·적금 회수를 나선 시민들은 물론, 문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 원금 5000만원, 이율 3.8%짜리 2년 만기 예금에 가입 중인 조기주(90·영광군)씨는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을 직접 찾기 어려워 전화로 문의해보니, 정부가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데다, 일부 새마을

금고의 문제일 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자녀들이 돈을 빼야 한다고 얘기하고 언론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니 불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일선 새마을금고 영업점은 중도해지 고객 잡기에 진땀을 빼고 있다. 서울의 한 영업점은 이사가 ‘각서를 써주겠다’고 나서는 등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마을금고의 이런 설명에도 지역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김용철 MG동명새마을금고 이사는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안전하니 출금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돈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일부 부실 금고의 문제일 뿐 이의 모든 금고는 안전하다. 새마을금고는 각 독립법인으로 혹여 폐업을 해도 다른 법인에 인수 합병돼 예치금 전액을 이전함으로써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6일 오후 광주시 서구의 한 개별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6대 4 정도의 비율인데, 연체액은 기업대출이 88.4%가량을 차지한다. 부동산·건설업 침체에 따라 기업 대출 연체율(9.63%)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65%다. 이 때문에 ‘부실’ 논란이 일며 예치금을 빼내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새마을금고 유동성 문제 없습니다”

정부, 불안심리 차단 총력...연체율 낮추기 범정부적 협의 지속

정부가 새마을금고 자산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이 국민적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부실채권 매각 및 연체율 관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자금 이탈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정부 메시지 효과 등으로 이탈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불안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유동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지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신을 다시 늘리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적 협의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불안에 예·적금을 중도해지했다더라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처리를 위한 다양한 매각 채널도 확보하고 있다.

캠코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수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 보유 자산의 유통화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유통화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농협이나 수협 등과 달리 보유 자산을 유통화할 수 없어 대출 부실화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개별 자산 매각 확대를 위해 매각 대상 대부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광주·전남 상장사 시총 7% 증가

지난달 38곳 21조1345억으로 1조3832억 늘어...코스피 8.31%

지난 6월 광주와 전남지역 상장법인 시총액이 전달보다 7% 증가했다.

6월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6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 38개 상장법인의 시총액은 21조1345억으로 전달(19조7513억)보다 7%(1조3832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는 8.31%(1조4535억) 증가했고 코스닥은 3.11%(703억) 감소했다.

코스피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달보다 시총이

7.97%(9757억) 오르며 13조2244억을 기록했고, 조선내화는 147.95%(5060억) 급등했다.

반면 다이나믹디자인(-300억)과 한전KPS(-292억)는 시총이 감소했다.

코스닥에선 DGP가 27.63%(286억), 와이엔텍이 4.07%(61억) 증가한 반면, 박셀바이오(-669억)와 남화토건(-208억)은 감소했다.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지난달 주식 매수거래금액은 3조9499억으로 전달보다 7452억 증가했다. 매도거래금액도 3조9169억으로 전달보

다 6151억 많았다.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28.67%(4536억), 매도거래대금 20.91%(3525억) 증가했다.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17.97%(2916억), 매도거래대금은 16.25%(2626억) 늘었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매도 거래대금 비중(0.86%)은 전달보다 0.09%포인트 증가했고, 매수대금(0.85%)은 0.05%포인트 늘었다.

지난달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은 ‘POSCO홀딩스’였다.

지역민들은 포스코메카닉 주식 896억원을 사들이고 862억원 팔아치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개그맨 전유성 초청

1611회 포럼 7일 오전 7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개그맨 전유성(사진)이 광주경총의 1611회 금요조찬포럼 강사로 나선다.

광주경총총협회(회장 양진석 ㈜우원 회장)는 7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개그맨 전유성을 초청해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유성은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을 깨자’를 주제로 ‘나의 아이디어는 불만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등을 내용으로 강연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회

를 시작한 이래로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기업CEO와 지역민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발전엔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은 만큼 전국적으로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금요조찬포럼은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경총 총괄사업본부 전화(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LH 미분양 10필지 공급

광주·전남본부, 효천1지구 등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 효천1지구 등 3곳의 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 10필지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 효천 1지구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2필지(평당 486만원), 근린생활시설 용지 3필지(평당 635만원)는 경쟁입찰 방식이다.

방송통신시설용지 1필지(200㎡·평당 660만원)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1필지(평당 1234만원)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1필지(평당 855만원)와 목포 용해2지구 주차장 용지 1필지(평당 219만원)도 공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5천억 규모 중기 특별자금대출

업체당 최고 70억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동반 특별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자금대출은 광주·전남·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규자금 5000억원을 편성해 한도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이며, 대출금

리는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산출금리 대비 최대 1.7%포인트를 감면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기반이 탄탄한 역동적인 강소은행으로 지역민의 든든한 성공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종이 증명서 없이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

올해 연말부터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명서)를 공공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통신사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 건수는 4억3000만 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업무에 대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소비자가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 시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6.29(-22.71)
↓ 코스닥	870.53(-20.65)
↑ 금리(국고채 3년)	3.676(+0.058)
↑ 환율(USD)	1300.90(+2.30)



판도라 ‘1+1 팔찌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에서 판매 중인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다. 판도라는 여름을 맞아 오는 9일까지 ‘1+1 팔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만8000원 이상 팔찌 2개 구매 시 최저가 팔찌를 1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